

# 既婚 女性들의 身體滿足度와 衣服滿足度에 關하여

## A Study on Body Cathexis and Clothing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金 容 淑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Jeonbug National University.  
Full Time Instructor; Yong sook Kim

### <目 次>

- |                |             |
|----------------|-------------|
| I. 序論          | IV. 結果 및 論議 |
| II. 理論的 背景     | V. 結論       |
| III. 研究方法 및 節次 | 参考文獻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body cathexis and cloth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age, job, and total monthly income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cathexis and clothing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43 items of body parts and body functions were selected to measure body cathexis from Secord and Jourard Body Cathexis Scale. And 56 items of Mclean's Clothing Satisfaction Scale were used for clothing satisfaction.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84 mothers in Jeonbug Province. 3-way ANOVA and Newman-Keuls test were used for group differe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Standard Deviation, and Mean were calcu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1. Body cathexis of married wom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The older group had higher body cathexis scores.

2. Clothing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interaction of age, job, and total monthly income. The older and higher income group without job had the highest clothing satisfaction scores than any other group.

“Fabric of Clothing” and “Availability of Clothing” among 6 subscales of clothing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o the interaction of age, job, and total monthly income. The older and higher income group without job had the highest satisfaction scores.

Among 6 subscales of clothing satisfaction, the rank orders were “Fitness of Clothing”, “Fabric of Clothing”, “Appearance of Clothing”, “Performance of Clothing”, “Social-psychological Role of Clothing, and “Availability of Clothing”.

3.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body cathexis, clothing satisfaction, and 6 subscales of clothing satisfaction.

Body cathexis could explain 31.15% of clothing satisfaction, 26.22% of "Social-psychological Role of Clothing", 17.99% of "Fitness of Clothing", 19.40% of "Appearance of Clothing", 14.48% of "Fabric of Clothing", 13.00% of "Performance of Clothing", and 19.17% of "Availability of Clothing", when age, job, and income were controlled.

## I. 序 論

인간의 노화 단계는 어린이 때부터 인식되어야 자신의 일생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 개발에 도움이 되며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sup>1),2)</sup>. 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신체 변화가 이루어지며, 특히 체중 증가, 가슴 둘레와 허리둘레 증가, 상원과 전동 둘레가 커지는 것, 유방이 내려 앓는 것 등은 자주 지적되는 요인이며<sup>3~5)</sup>, 또 이와 같은 신체 부위의 변화가 의복 만족도를 낮게 만든다<sup>6)</sup>.

1960年代 이전에는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 분야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분야는 소비자, 생산자, 공공 정책 입안자의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 측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며, 공공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공공 정책의 평가와 계획에 도움이 된다<sup>6)</sup>.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의류업계에서는 를 확실성이 적어지게 된다<sup>7)</sup>.

1970年代 후반기부터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의 의식주가 복잡해지고 바빠짐에 따라 기성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효가 늘어나고 있다<sup>8)</sup>. 의복은 물리적 身體의 확장 또는 全人格의 확장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체 만족도는 신체의 기능과 외모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복 행동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sup>9)</sup>. 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에 만족하거나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10)</sup>고 보고 되었다. 이와 같은 견해 근거를 두고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

로 이들의 나이, 직업, 충수입 분류에 따른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를 알아 보고 또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理論的 背景

### 1. 身體 滿足度

Secord와 Jourard<sup>11)</sup>는 "신체 만족도는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갖는 만족도이다"고 정의하였다.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갖는 감정은 자아에 대하여 갖는 감정과 일치하며 신체가 부상 당하거나 병이나 기타 원인으로 고통받을 때 또는 불안한 경우에 신체 만족도는 낮아진다. 신체 만족도는 정신 건강의 지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성인 초기부터 신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변화와 구조 변화가 발생한다. 또 이들은 신체의 크기를 신체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선정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의 실제 계측치, 추측되는 신체의 크기,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신체의 크기와 신체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신체 각 부위의 실제 계측치는 추측되는 신체의 크기와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의복 구입시 고려되는 체중, 키, 허리둘레, 가슴둘레, 엉덩이 둘레 등의 실제 계측치와 추측되는 크기는 신체 만족도와 상관 관계가 있었다. 특히 가슴 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었다<sup>12)</sup>.

Johnson<sup>13)</sup>은 20대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만족도와 자아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체 만족도가 낮았다. Richard와 Hawthorne<sup>14)</sup>는 남자 대학생의 신체 만족도는 전공과 학년에 관계가 깊다고 보고하였다. 농과 대학생이

상파 대학생보다 신체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고학년 학생이 신입생보다 신체 만족도가 더 높았다. 대인 관계가 많은 상파 대학생이 외모에 더 신경을 쓰며 더 비판적이기 때문으로 풀이 되었다. 흑인과 백인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자만심과 신체 만족도와 의복 변인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이 두 집단은 신체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대상자 모두 자만심과 신체 만족도 사이에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자만심과 신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의복을 통하여 자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sup>14)</sup>. Lott<sup>15)</sup>는 흑인과 백인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행한 연구에서 자신의 신체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 특성에 대해서도 높은 자아 개념을 갖고 있음을 알아냈다.

Mclean<sup>16)</sup>의 20~89세 여성의 신체 만족도 측정 결과에 의하면 20대 여성과 70대 이상의 여성들의 신체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각 연령층별 신체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다. 李와 姜<sup>17)</sup>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중년기 여성의 신체 만족도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2. 衣服滿足度

Ryan<sup>8)</sup>은 “의복 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지수이다”고 하였다. Mclean<sup>18)</sup>은 “의복 만족도는 자신의 의복에 대한 만족 정도이다”고 정의하였다. 의복 만족도는 실체적 요소 이외의 의복의 특징이나 개인의 관심이나 가치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의복을 구입하거나 자주 그 옷을 입는 정도와 관계된다. 특정 의복에 대한 만족도는 그 옷을 입어 본 경험이나 다른 옷과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의복에는 여러 특성이 있어서 어느 한 면에 대해서는 만족이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불만인 경우도 있다<sup>9)</sup>.

의복 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경험이므로 수입이나 사회 경제적 위치와 같은 생활 외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와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갖는 것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sup>10)</sup>. 의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질만족도, 의복자유도, 유행상품 구입 정도, 자기 만족도, 가내 물품 소유 정도, 자신의

의복 선택 정도, 결혼기간 등의 사회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사회 경제적 요인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sup>19, 20)</sup>.

의복 만족도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의복이 몸에 맞는 정도<sup>17)</sup>, 의복의 양과 질<sup>19, 20)</sup>, 의복의 성능, 의복의 손질 방법<sup>21)</sup> 등에 대한 부분적 만족도 측정이 대부분이었다. 의복이 몸에 맞는 정도는 의복 선택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은 의복 디자인과 안락감에 대한 개인적 욕구에 의하여 달라지는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다<sup>7)</sup>. Wall 등<sup>21)</sup>은 착용상의 만족도나 관리상의 만족도 측정의 경우에는 실용적 만족도가 우선하며 의복 착용 시 또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측정 도구와 방법이 다른 상태에서 연구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Lowe와 Dunsing<sup>20)</sup>은 의복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이 의복 만족도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clean<sup>16)</sup>은 “의복의 사회 심리적 역할”, “의복의 맞음새”, “의복의 외양”, “의복의 소재”, “의복의 성능”, “의복 구입의 용이도” 등의 6하위 변인을 갖는 의복 만족도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20~89세 여성의 의복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50대 여성의 의복 만족도가 제일 낮았으며, 60대 여성의 의복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나 각 연령계층 간의 유의차는 없었다. “의복의 소재”만이 연령계층 간 유의차가 나타난 하위변인이었다.

李와 姜<sup>17)</sup>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들은 밀길이, 허리, 엉덩이 부위가 잘 맞지 않으나 전체적인 맞음새, 활동을 위한 여유분, 진동 틀레, 소매, 어깨는 잘 맞으며 자신의 의복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기성복에 불만이 있는 경우 맞춤복 이용이 가능한 우리나라 실정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풀이되었다.

## III. 研究 方法 및 節次

### 1. 測定 導具

#### 1) 신체 만족도 검사

Secord와 Jourard<sup>11)</sup>의 Body Cathexis Scale의 46문항 중 43문항만 선택<sup>16)</sup> 번역하여 사용하였

다. 5단계 평정으로 “아주 만족한다(5점)”에서 “아주 불만이다(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의복 만족도 검사

Mclean<sup>18)</sup>의 Clothing Satisfaction Scale을 번역하여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하고 내적 신뢰도 ( $r = 0.818$ )를 측정한 후 사용하였다. “의복의 사회심리적인면(CS①)”에 관한 11문항, “의복의 맞음새(CS②)”에 관한 14문항, “의복의 외양(CS③)”에 관한 7문항, “의복의 소재(CS④)”에 관한 7문항, “의복의 성능(CS⑤)”에 관한 10문항, “의복 구입의 용이도(CS⑥)”에 관한 7문항의 6하위 변인으로 나뉘어 있다. 5단계 평정으로 “아주 만족한다(5점)”에서 “아주 불만이다(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표집대상자의 나이, 직업, 월평균 총 수입에 관한 문항

연령 구분은 Katz와 Lazarsfeld<sup>22)</sup>의 구분에 따르고 직업 문항은 직장 여성과 가정주부로 구분하였다. 월평균 총수입은 도시 근로자 가구와 봉급 생활자 가구의 월평균 총수입<sup>23)</sup>이 중간층에 둑이도록 구분하였다.

### 2. 조사 대상자의 자료 수집

전라북도 내의 2개 도시 내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을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나이도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학력은 고졸 이상자로 제한하였다.

자료 수집은 1986년 4월 중에 전라북도 내 2개 도시에 위치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의 어머니에게 학교를 통하여 총 600부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384부만이 최종 통계 처리에 이용되었다.

### 3. 연구의 한계점

표집 대상이 전라북도에 위치한 2개 도시에 거주하는 고졸 이상자로 제한되었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4. 자료 분석

모든 만족 점수에 대하여 평균, 표준편차, 범위

를 계산하였으며, F-ratio와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 평균치 간의 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Newman-Keuls Test를 하였다.

## IV. 결과 및 论議

### 1. 표집 대상자

표집 대상자의 나이, 직업, 가정의 월평균 총수입 분포가 <表 1>에 나타나 있다.

<表 1> 표집 대상자의 분포 (N=384)

구 分		명	백분률(%)
독립변인			
나 이	20~29세	131	34.2
	30~44세	171	44.4
	45~60세	82	21.4
직업	직장여성	125	32.6
	가정주부	259	67.4
가정의 월평균 총수입	40만원 미만	108	28.1
	41~80만원	205	53.4
	81만원 이상	71	18.5

### 2. 신체 만족도

<表 2>에 나이, 직업, 월평균 총수입 구분에 따른 신체 만족도 차이가 나타나 있다. 나이만이 신체 만족도에 대하여 유의차를 나타낸 면인이다.

<表 2> 나이, 직업, 총수입에 따른 신체 만족도의 차이 (3-Way ANOVA)

구 分		df	MS	F-ratio
독립변인				
주 효 과	나 이	2	1218.453	3.133*
	직 업	1	13.286	0.034
	총 수 입	2	191.535	0.492
상 호 작 용	나 이 × 직 업	2	156.927	0.403
	나 이 × 총 수 입	4	873.836	2.247
	직 업 × 총 수 입	2	0.176	0.000
	나 이 × 직 업 × 총 수 입	4	173.999	0.447
기 전	타 체	17	388.923	
	전 체	383	390.786	

\*p<0.05

〈표 3〉 나이에 따른 신체 만족도의 기술 통계량  
(N=384)

분석 나이	평 균	(평균) <sup>a</sup>	표준편차(표준편차) <sup>a</sup>	
20~29세	140.60	(56.74)	20.28	(11.79)
30~44세	143.35	(58.34)	19.14	(11.13)
45~60세	148.55	(61.37)	20.82	(12.10)
전 체	144.12	(58.79)	19.77	(9.74)

( )<sup>a</sup>-는 100점 환산 점수임.

〈表 3〉에 나이 계층 구분에 따른 신체 만족도의 기술 통계량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신체 만족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이 계층간 신체 만족도 평균 사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Newman-Keuls Test 를 실시한 결과가 〈表 4〉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20~29세 그룹과 45~60세 그룹의 신체 만족도 평균 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풀이된다.

신체 만족도의 가능 점수 범위는 43~215이나 실제 점수 범위는 78~207(14.53~95.35)<sup>a</sup>이었고, 전체 평균은 144.12(58.79)<sup>a</sup> 이었다. 이 점수는 金<sup>24)</sup>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미혼 여성이 포함된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 131.01(51.17)<sup>a</sup> 보다 높으며 李와 姜<sup>17)</sup>의 연구 결과인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중년기 여성의 신체 만족도 130.70~136.72 (50.99~54.49)<sup>a</sup>보다 높았다. 이것은 Richard 와 Hawthorne<sup>a</sup>의 결론인 대인관계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더 비판적이라는 이론을 적용시켜 풀이할 수 있다. 대도시 거주자나 젊은 미혼

〈표 4〉 나이 계층간 신체 만족도 평균차  
(Newman-Keuls Test)

연령구분	분석 평 균 차	q × (St)
20~29세 와 30~44세	2.75	7.21
30~44세 와 45~60세	5.20	7.21
20~29세 와 45~60세	7.95*	6.03

$$q_{0.05}(3.366) = 3.31, q_{0.05}(2.366) = 2.77$$

$$St = \sqrt{\frac{MS}{N}}$$

$$*p < 0.05$$

여성이나 20대의 나이가 적은 여성의 신체 만족도가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Mclean<sup>16)</sup>의 연구 결과인 미국 여성의 신체 만족도 148.88(61.56)<sup>a</sup> 가 더 낮았다.

### 3. 의복 만족도

〈表 5〉에 나이, 직업, 가정의 월평균 총수입에 따른 의복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의복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의 6하위 변인 중 “의복의 소재”와 “의복 구입의 용이도”는 나이, 직업, 총수입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유의차를 나타낸 변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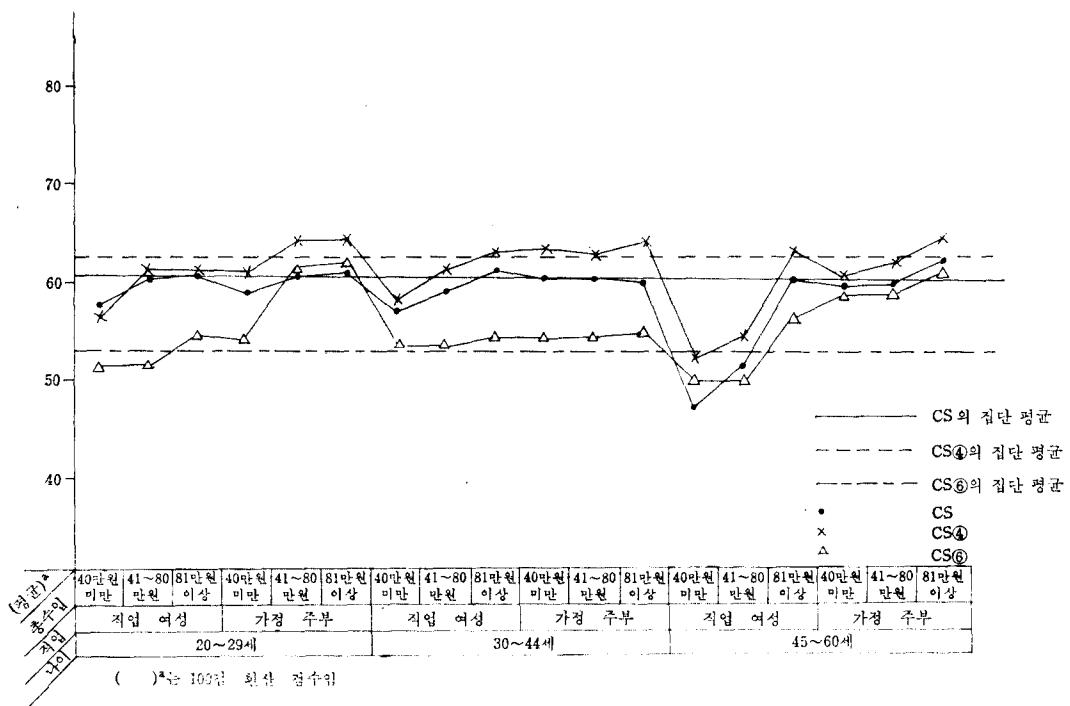
나이, 직업, 월평균 총수입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유의차를 나타낸 의복 만족도와 “의복의 소재”와 “의복 구입의 용이도”的 평균을 그라프로 나타내면 [도 1]과 같다. 여기에서 나이가 많고 주부 역할만 하는 수입이 높은 계층의 의복 만족도, 의복의 소재에 대한 만족도, “의복 구입의 용이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의복 만족도의 가능 점수 범위는 56~280이나 실제 점수 범위는 128~280(32.14~100.00)<sup>a</sup>이었고 전체 평균은 190.48(60.04)<sup>a</sup>이었다. “의복의 사회 심리적인 면”에 대한 만족도 가능 점수 범위는 11~55이나 실제 점수 범위는 23~55(27.27~100.00)<sup>a</sup>이었고, 평균은 36.42(55.77)<sup>a</sup>이었다.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 가능 점수 범위는 14~70이나 실제 점수 범위는 29~70(26.79~100.00)<sup>a</sup>이었고, 평균은 49.70(63.75)<sup>a</sup>이었다. “의복의 의양”에 대한 만족도 가능 점수 범위는 7~35이나 실제 점수 범위는 10~35(10.71~100.00)<sup>a</sup>이었고 평균은 24.01(60.75)<sup>a</sup>이었다. “의복의 소재에 대한 만족도 가능 점수 범위는 7~35이나 실제 점수 범위는 15~35(28.57~100.00)<sup>a</sup>이었고 평균은 24.50(62.50)<sup>a</sup>이었다. “의복의 성능”에 대한 만족도 가능 점수 범위는 10~50이나 실제 점수 범위는 19~50(22.50~100.00)<sup>a</sup>이었고, 평균은 33.93(59.85)<sup>a</sup>이었다. “의복구입의 용이도”에 대한 만족도 가능 점수 범위는 7~35이나 실제 점수 범위는 9~35(7.14~100.00)<sup>a</sup>이었고 평균은 21.94 (53.36)<sup>a</sup>이었다. 의복 만족도의 6하위변인 중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으며 “의복

&lt;표 5&gt; 나이, 성별, 월령과 총수입에 따른 의복 만족도의 차이(3-Way ANOVA)

구분		의복만족도		의복 만족도의 6차원 평균										
				C S ①		C S ②		C S ③		C S ④		C S ⑤		
독립변인	df	M S	F-ratio	M S	F-ratio	M S	F-ratio	M S	F-ratio	M S	F-ratio	M S	F-ratio	
주 효 과	나 이 성 별	2	278.583	0.550	0.361	0.012	115.944	2.205	0.069	0.004	2.815	0.217	16.994	0.660
상 호 작 용	나 이 성 별 × 총 수 입	1	598.662	1.074	0.619	0.021	96.311	1.832	18.117	1.152	38.885	2.987	2.156	0.084
나 이 성 별 × 총 수 입 × 종 류	2	126.175	0.226	40.901	1.397	17.712	0.337	8.506	0.542	7.631	0.587	2.140	0.082	
나 이 성 별 × 총 수 입 × 종 류 × 총 수 입	4	192.934	0.346	46.578	1.591	13.459	0.256	12.465	0.794	2.819	0.217	12.307	0.478	
전	전	366	557.172	29.269	52.584	15.693	13.001	25.747	24.734	25.557	24.609			

\*p&lt;0.05



[도 1] 의복 만족도, “의복의 소재”, “의복 구입의 용이도”의 나이, 직업, 총수입에 따른 평균

구입의 용이도”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았다. 의복 만족도의 6하위 변인을 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면 “의복의 맞음새”, “의복의 소재”, “의복의 화양”, “의복의 성능”, “의복의 사회 심리적 역할”, “의복 구입의 용이도”이다.

미혼 여성의 포함된 20대 여성의 의복 만족도를 측정한 金<sup>24)</sup>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의복의 사회 심리적 역할”에 대한 만족을 제외한 의복 만족도의 5개 하위 변인과 의복 만족도에 있어서 기

혼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sup>18, 24)</sup>을 고려 할 때 나이가 높아짐에 따라 신체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의복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Mclean<sup>18)</sup>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미국 여성 이 한국 기혼 여성보다 “의복의 맞음새”와 “의복 구입의 용이도”를 제외한 의복 만족도의 4개 하위 변인과 의복 만족도에서 더 높았다. 이것은 미국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기성복을 이용하지만 한국

〈표 6〉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의 상관계수와 부분 상관계수 (N=384)

의복만족도		의복만족도의 6하위 변인					
		C S ①	C S ②	C S ③	C S ④	C S ⑤	C S ⑥
신체만족도	0.5579**	0.5042**	0.4294**	0.4355**	0.3799**	0.3640**	0.4369**
나이, 직업, 총수입을 통제한 신 체 만족도	0.5581**	0.5121**	0.4242**	0.4404**	0.3805**	0.3605**	0.4378**
R <sup>2</sup>	0.3115	0.2622	0.1799	0.1940	0.1448	0.1300	0.1917

\*\*p&lt;0.01

여성의 경우 기성복의 맞음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맞춤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sup>17)</sup>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 4.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

〈表 6〉에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 사이의 상관계수와 부분 상관계수가 나타나 있다. 신체 만족도는 의복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의 6하위 변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sup>18)</sup> 이 결과는 McLan<sup>19)</sup>의 연구 결과, 李와 姜<sup>20)</sup>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이로써 의복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의 6하위 변인은 의복으로서 자아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척도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나이, 직업, 총수입을 통제한 신체 만족도는 의복 만족도를 31.15%, CS①에 대해서는 26.22%, CS②에 대해서는 17.99%, CS③에 대해서는 19.40%, CS④에 대해서는 14.48%, CS⑤에 대해서는 13.00%, CS⑥에 대해서는 19.17% 설명할 수 있었다.

### V. 結論

1. 기혼 여성들의 신체 만족도는 나이에 따라 유의차를 나타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신체 만족도도 높아졌다.

2. 기혼 여성들의 의복 만족도는 나이, 직업유무, 총수입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유의차를 나타냈다. 나이가 많고 주부 역할만 하며 총수입이 높은 계층의 의복 만족도가 높았다.

의복 만족도의 6하위 변인 중 “의복의 소재”와 “의복 구입의 용이도”는 나이, 직업유무, 총수입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유의차를 나타냈다. 나이가 많고 주부 역할만 하며 총수입이 높은 계층의 “의복의 소재”와 “의복 구입의 용이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의복 만족도의 6하위 변인 중 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면 “의복의 맞음새”, “의복의 소재”, “의복의 외양”, “의복의 성능”, “의복의 사회 심리적 역할”, “의복 구입의 용이도”이었다.

3. 기혼 여성들의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의 6하위 변인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나이, 직업, 총수입을 통제한 신체 만족도는 의복 만족도를 31.15%, “의복의 사회 심리적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26.22%,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17.99%, “의복의 외양”에 대한 만족도를 19.40%, “의복의 소재”에 대한 만족도를 14.48%, “의복의 성능”에 대한 만족도를 13.00%, “의복 구입의 용이도”에 대한 만족도를 19.17% 설명할 수 있었다.

### 参考文献

- Hawkes, G., M. Hawkins, L. Reiner, & A. Smith, Home Economics Philosophy on Age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4(8), p706, (1962)
- 서봉연, 유안진, 인간 발달, 서울대학교 출판부, p.226~295, (1982)
-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Holt, Rinehart, & Winston, Inc., p.306~321, (1966)
- Blair, M.H., Changes in Appearance of Women 45 to 65 Years of Age Which Affect Use of Ready-to-Wear Garments and Commercial Patterns, *Journal of Home Economics*, 45(4), p.248~250, (1953)
- 조길수, 이순원, 성인 여성의 의복 치수 설정에 관한 기초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18(1), p.1~13, (1980)
- 박명희, 소비자 만족, 불만족 개념에 관한 이론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1), p.59~70, (1985)
- Ryan, M.S., 전기서, p.178~187.
- 송태옥, 공민희, 성인 여자 기성복의 치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1), p.23~26, (1982)
- Richard, E.A. & R.E. Hawthorne,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3), p.190~194, (1971)
- Hafstrom, J.L. & M.M. Dunsing, Levels

-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p.119~132, (1973)
11. Secord, P.F. & S.M. Jourard,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5), p.343~347, (1953)
  12. Jourard, S.M. & P.F. Secord, Body Cathexis and the Ideal Female Figure,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0, p.243~246, (1955)
  13. Johnson, L.C., Body Cathexis as a Factor in Somatic Complai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0(2), p.145~149, (1956)
  14. Ford, I.M. & M.F. Drake,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p.189~196, (1982)
  15. Lott, I., Self-concept and Related Adornment Behavior of Negro and White Adolescent Girls, Unpub. Master's Thesis, Michigan State Univ., (1966)
  16. Mclean, F.P., The Process of Age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 Ph. D. Dissertation, Utah State Univ., p.57, (1978)
  17. 이영윤, 강혜원,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 만족도와 의복 행동과의 상관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6(2), p.17~24, (1982)
  18. Mclean, F.P., 전개서, p.47~48.
  19. 홍금희, 성인 여성의 의복 만족도 결정 변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3), p.9~18, (1984)
  20. Lowe, E.D. & M.M. Dunsing, Clothing Satisfaction Determina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 (4), p.363~373, (1981)
  21. Wall, M., L.E. Dickey, & W.W. Talarzyk, Profiling Consumer Communication of Complaints about Clothing Performa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6), p.368~378, (1979)
  22. Katz, E. & P. Lazarsfeld,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 3rd. ed., The Fress Press, p.249~252, (1966)
  23. 경제기획원 조사부, 한국 통계 연감, p.40~41, (1983)
  24. 김용숙, 20代 여성의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에 관하여, *호남대학논문집*, Vol. 4, p. 573~585, (1984)